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본격화

전북중기청-김제시, 전통시장 내 보건소 건물 1층 자리 부지로 결정돼 사업추진 발판 마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그간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 본 계획에 진입해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래, 사업단 구성 및 사업관계자간 협약 체결 이후 당초 사업 부지에 대한 매입 과정에서 매매금액 입장 차이로 진행이 중단되었고, 다른 부지 모색도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차조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다.

그동안 입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지연됐던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전북중기청과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보

로 김제전통시장 내 보건소 건물 1층 자리가 부지로 결정되면서 사업추진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 사업추진협의회를 2회 개최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심의·의결된 후 최근 전북중기청을 통해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상인(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창업점포를 비롯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 지역민과 소통 등 융합된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고령화된 전통시장에 활력제고와 젊은층 유입 붐을 조성하고, 창업을 통한 청년상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계획의 컨셉은

김제의 먹거리 자원인 쌀과 축산물, 지역 자원의 지평선 축제, 금산사, 벽골제, 청년, 청춘 등의 단어를 조합한 '나이스 폴'로 사업 테마를 확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청년 점포 10개를 비롯하여 바닥, 상수도, 전기, 조명, 소방 등 기초공사와 청년상인 창업 준비 지원, 인테리어 지원, 임차료 지원, 홍보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며, 공용공간으로는 김제의 역사, 문화유산, 민속 등의 내용을 활용한 그라피티 아트 공간, 트리아트 포토존, 레트로 오락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몰에 입주하는 예비 청년상인 1차 모집기간은 29일까지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신청접수는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으로 온라인(전자문서), 우편(마감일 도착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전통시장 청년몰조성사업단(☎063-546-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그간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 부지선정 관계에 있어 어려움과 우려곡절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첫삽을 뜨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김제전통시장을 넘어서 김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청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김제시와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풀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북중기청, 7월 8일까지 비대면 수출마케팅서비스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비대면 화상상담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국·내외 전시회 피해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브랜드K 등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여개사의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월 2회 이상 총 10회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빅데이터클럽, 글로벌넷, 해외민간네트워크 등 기관별 네트워크를 활용, 다양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매칭부터 계약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 및 디자인·상품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바이어-제조사-무역전문가 3자 화상 수출상담회, 제품 샘플의 해외배송 서비스 제공, 자원위원 매칭으로 계약 지원 후 온라인 소싱플랫폼대행 등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메일(russagi@korea.kr)로 송부해야 하며, 의문사항은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JB문화공간 전경.

'센스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라'

전은, 배선영 스타일리스트 주제 강연 시작으로 JB문화공간 다시 문 열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12일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의 '센스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라'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절된 JB문화공간의 문을 석 달 만에 재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JB문화공간은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나눔 실천공간으로 은행 카드회원과 문화공간 회원들에게 공연과 강좌 등 수준 높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라운지와 소회의실, 다목적홀, 음악감상실, 투포탑 등 공간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관하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아카데미 '제1기 JB문화화살'과 회원들을 위한 명사초청 'JB문화공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젊은이를 위한 '투포탑 이벤트', 활동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동호회 지원사업', 참여형 프로그램인 'JB문화강습' 등 깊이 있고 폭 넓은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JB문화화살 프로그램으로는 재즈(정운수), 뮤지컬(박갈린), 클래식(나성인), 미술(박영택)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과 함께 강의와 예술현장을 직접 찾아가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속 인문학을 표방하는 JB문화공연은 명진스님과 소리꾼 박애리, 세시봉의 가수 윤형주와 통기타 가수 임지훈의 7080 콘서트, 정장현 피아노 전유성의 개그 쇼토크, 임채신 재즈트리오와 정운수의 해설이 있는 재즈콘서트 등 아티스트와 관객이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작은 공연장에서 만 누릴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의 뷰포인트로 인기 있는 투포탑은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과 파타, 모임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이다. 특히 한옥마을 정경과 성당을 배경으로 찍는 천국의 계단 포토존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젊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5월 중 실시하는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2층 카페요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

동호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가, 라인댄스, 사진, 보태니컬, 자수, 여행영어, 일본어수업, 클래식 전문가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산책' 등의 문화강습은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 된다.

프로그램 및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www.jbcenter.o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063-288-779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동호회 대관시 우대 혜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각 강연, 공연에 무료 및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JB카페 5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경진 전북은행 사회공헌부장은 "도민과 문화 공간 이용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회원을 모집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음 '내장산 복분자주' 2400병 홍콩 수출길 올라

정음시의 전통 과실주 브랜드인 '내장산 복분자주'가 홍콩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내장산 복분자주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여파로 인한 글로벌시장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수출 계약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내장산 복분자주(대표 최성호)는 홍콩 최대 유통사인 'park n shop'과 계약을 체결하고 4일 6,600달러 상당의 복분자주 2,400병(360ml)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서리맛은 단종보다 붉은색의 내장산 복분자주는 내장산 일대에서 재배한 복분자만을 100% 사용하는 전통주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오는 22일부터 2주간 홍콩 내 'park n shop' 지점 중 주요 20개 매장을 선정해 홍보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호 대표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 해외시장 진출을 노력해 정음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기자

김영명의 의심되면 '1339'로

'사랑·감사·존경, 꽃으로'

농진청, 장미·호접란 등 국산 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어버이날(8일), 성년의 날(18일), 부부의 날(21일)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꽃으로 전하고자 지난 1일 제안했다.

꽃은 인간의 시작과 축가, 후각을 자극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품종마다 특별한 꽃말을 지니고 있어 은근히 마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장미, 카네이션, 선인장, 난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표 품종을 소개했다.

장미의 꽃말은 '행복한 사랑', '애정', '사랑의 사자'로 국산 장미는 특유의 향과 색을 지니는데, 적정 온도만 유지하면 일 년 내내 꽃이 핀다. 적은 빛으로도 잘 자라고 한가투병에 강한 '엔틱걸', 꽃이 일찍 피는 '엘로우션', 꽃이 크고 수량이 많은 '화이트뷰티', 꽃모양이 아름다운 '핑크뷰티', 꽃잎 수가 많고 절화(자른 꽃) 수명이 긴 스프레이 장미(미니 장미) '핑크사인'이 대표적이다.

'모정', '사랑', '감사', '존경'이라는 꽃말을 알려진 카네이션은 보통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붉은색을 떠올리지만, 국산 품종은 흰색, 자주색, 보라색, 녹색 등 색과 모양이 다양해 꽃다발부터 결혼식 장식, 꽃꽂이용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퍼플뷰티', '그린뷰티', '마블매지', '드림벨' 등이 대표적



장미 품종 중 하나인 '엘로우션'.

이다.

접목선인장은 '화합', '부부애', '인내'의 상징이다. 비모란과 삼자루, 서로 다른 두 선인장을 잘라 붙이는 접목 과정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과정과 비슷해 '부부의 날'이 있는 5월에 잘 어울린다. 꽃 못지않게 색이 선명하고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연빛', '아울', '보름' 등이 대표적이다.

꽃말이 '행복이 날아온다'인 호접란은 크기가 작은 종부터 대형종까지 다양한 품종이 개발돼 있다. 아담한 미니종 '리틀프린스', 중앙의 입술꽃잎이 다른 품종보다 큰 '러블리엔젤', 꽃이 많이 달리는 '아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칼라는 '열정', '정정'을 상징한다. '몽블랑', '화이트링', '스완' 같은 국산 품종은 무름병에 강하고 꽃 수명이 길며, 수량도 많아 농가와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다. 결혼식 꽃다발로도 인기가 높다.

/김윤상기자

어버이날·스승의 날·부부의 날 맞이 '꽃·같은 내마음' 3종 농협은행 전북본부,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꽃·같은 내마음' 3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의 디지털 채널인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예·적금(일출식 제외) 상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신규 신청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총 30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꽃·같은 내마음 이벤트'는 8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명을 추첨해 가족사진 촬영권, 생화꽃바구니, 생화꽃다발 등을 제공한다.

스승의날을 기념하는 '내 인생의 사부님께 전하는 꽃·같은 내마음 이벤트'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명을 추첨해 의



식상품권, 생화꽃바구니, 생화꽃다발 등을 제공한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꽃·같은 프로포즈 이벤트'는 11부터 2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명을 추첨해 1등이 기혼인 경우 리마인드웨딩 촬영권, 미혼인 경우 프로포즈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하고, 생화꽃바구니, 생화꽃다발 등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수면 케어용 메디푸드 육성

생진원-남원시, 천연안심소재 기술개발 선정... 흑하랑 상추 활용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농업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에서 시행하는 '2020년도 맞춤형형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흑하랑 상추의 유효성분(Lactucin)을 활용한 Deep Sleep 케어용 메디푸드 제품개발"을 진행하며, 본 사업에는 흑하랑농조합법인(대표이사 위일환), (주)리산생물산업(대표이사 위길숙) 그리고 위탁기관으로는 허브식품융합산업사업단(단장 김경)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흑하랑 상추는 일반상추보다 유효성분(Lactucin)이 12.4배 높은 함량을 가지는 신종종으로, Lactucin(락투신)은 상추에 함유된 유효물질로 최면효과, 긴장완화, 진정 및 진통완화효과를 가져 불면증과 스트레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흑하랑농조합법인은 기술이전을

받아, 2019년에 남원 아영 및 문봉 일대에 2,000평의 재배지에서 시범재배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남원시 상추 농가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2만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흑하랑 상추를 주원료로, (주)리산생물산업(대표이사 위일환)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돼 흑하랑 상추에 관한 원료재배 및 가공 매뉴얼 확립, 소재표준화를 통한 수면 기능성 메디푸드 제품개발로 향후 상추특화단지 조성에 밀려들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상협 "100년 먹거리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환영

이선홍 회장 "200만 도민과 함께 힘 모아 성원해 나갈 것"

지역상공인들이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 이하 전북상협)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상협은 "국가 탄소 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오래

전부터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주력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는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분회의 상정 무산과 연기 등 자동폐기의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공조를 통해 성과를 일궈낸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

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향후 충분한 예산지원과 민간부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원정책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탄소산업이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담당하는 주축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00만 도민과 함께 상공인 모두는 힘을 모아 성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